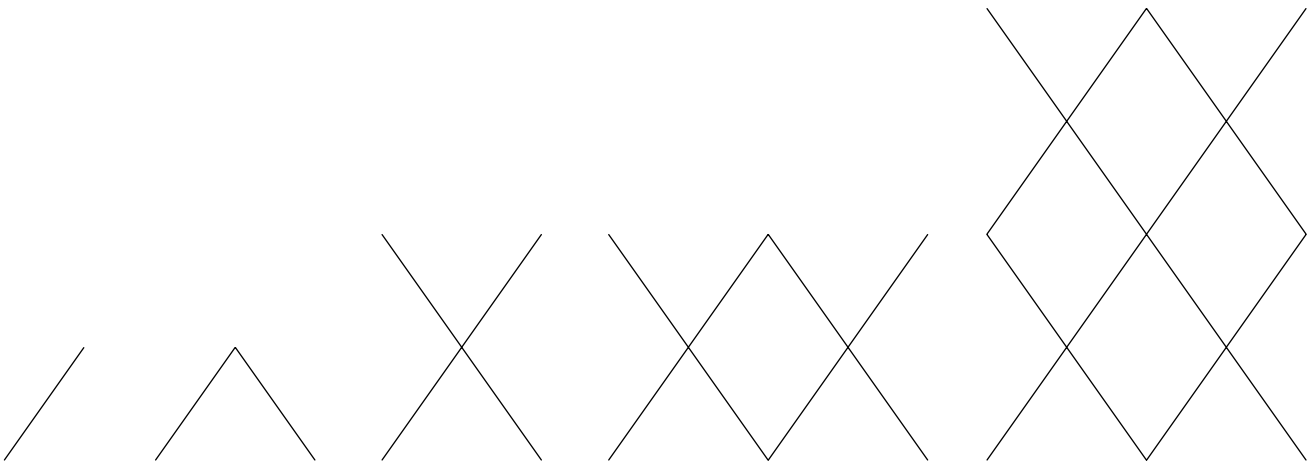


I hate you

UNIT OF FEELING

design by griong



I...

I hat...

I hate you!

I hate, hate you!

I hate, hate, hate, hate you!



A4

A3

A2

A1

A0

INSTRUCTION

A4 is a standard size of paper.
we can estimate more bigger size with A4.
so A3, A2, A1, A0... is not just a name of paper.
It is also a unit of siz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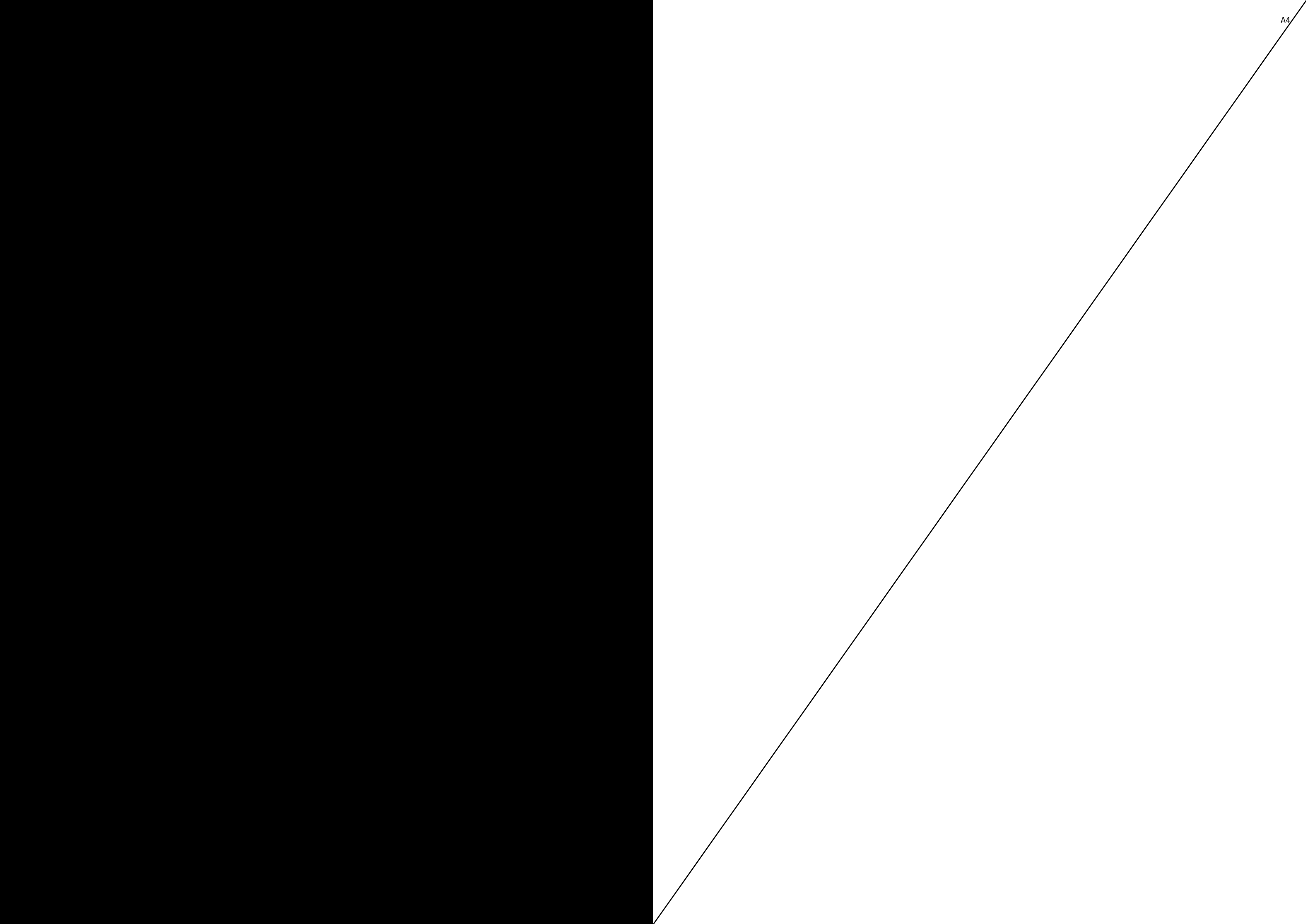
“I hate you” is conceptual work to measure the size of feeling, “hate”.
By using A4, I make an element, and use it to make patterns in more
bigger size. Even more A0, A-1, A-2... more and more...
So this work expresses the size of feeling, “hate” with patterns of X
that were from elements of A4. And then X also generally could be used a
symbol of the hate. When viewers turn the page of this book, they can find
many X patterns and feel emotion of the hate at the same time. Therefore
we can say “ I hate you so much.” as “ I hate you as much as A0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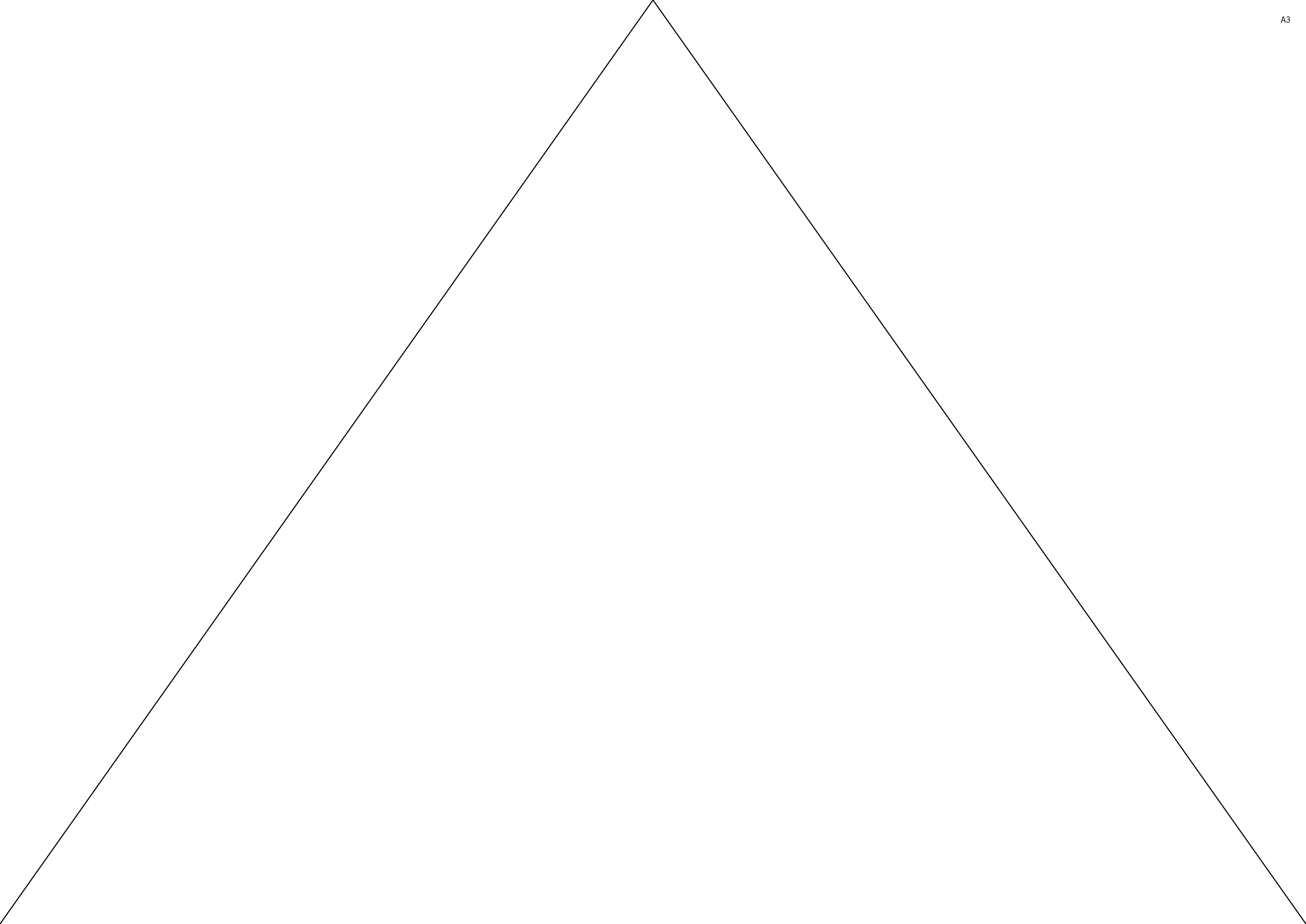
In conclusion, this conceptual work shows possibility of unit measuring
the size of feeling.

A4는 종이 크기의 표준이다.
우리는 A4를 통해 더 큰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.
그러므로 A3, A2, A1, A0... 는 단지 종이의 이름이 아니다.
그것은 크기에 대한 하나의 단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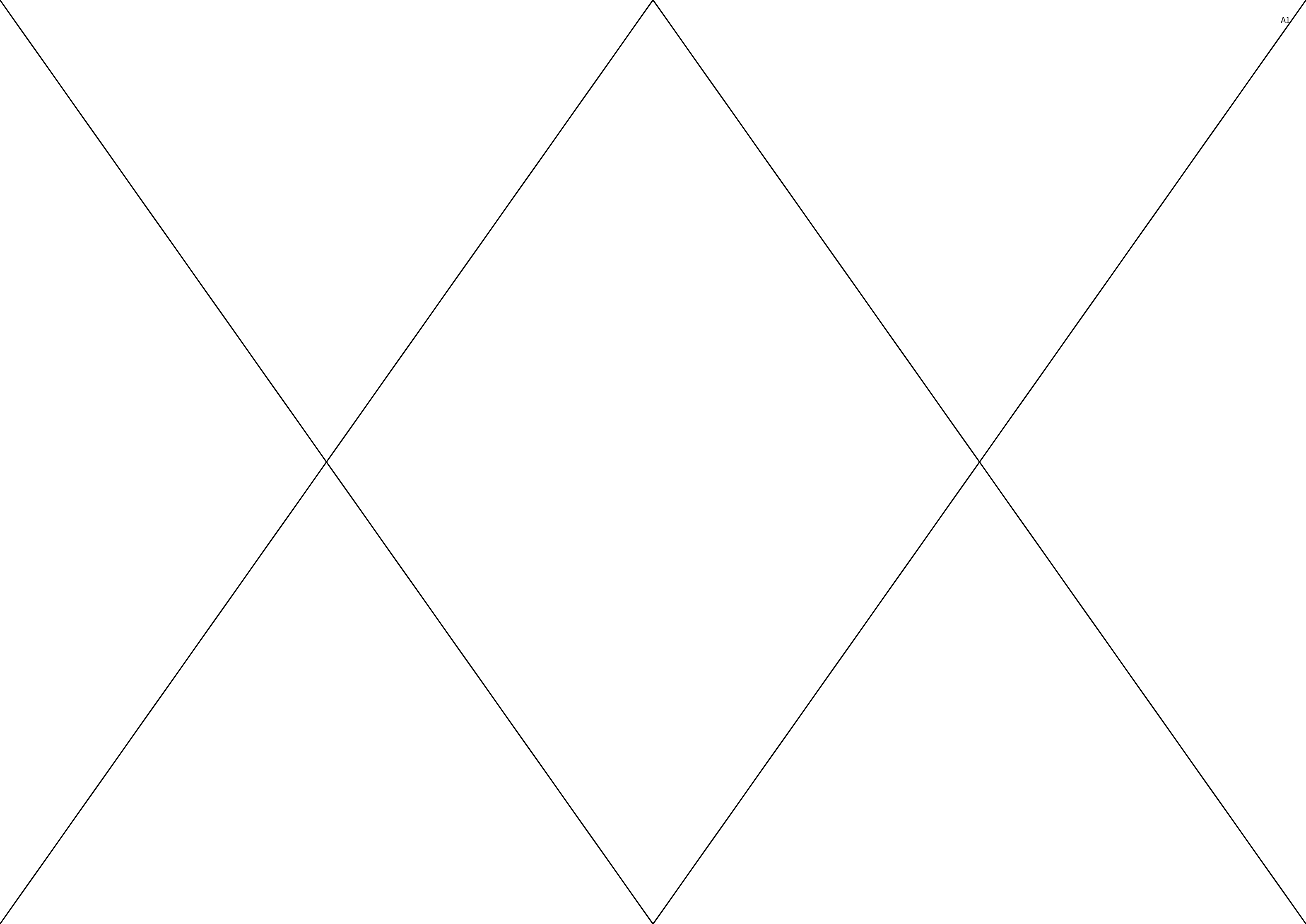
“나는 당신을 싫어한다.” 는 “싫어한다” 는 감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
적인 작업이다. A4를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고, 종이가 A4의 비례대로 커질수록 패턴
이 점점 많이 생기게 만들었다. 심지어 A0, A-1, A-2... 그 이상으로 커지는...
그래서 이 작업은 좋아한다는 감정의 크기를 A4의 요소에서 나온 X의 패턴을 통해
표현하려고 했다. 또한 X는 싫어한다는 부정의 의미로 일반적 상징으로 사용되어진
다. 책을 넘길때마다, 보는데는 더많은 X의 패턴을 볼 수 있다. 그리고 책을 넘김으로
써 더 싫어함을 느낄 수 있다. 그러므로 “나는 너가 매우싫다.” 는 추상적인 표현을
“나는 너가 A0만큼 싫다.” 로 말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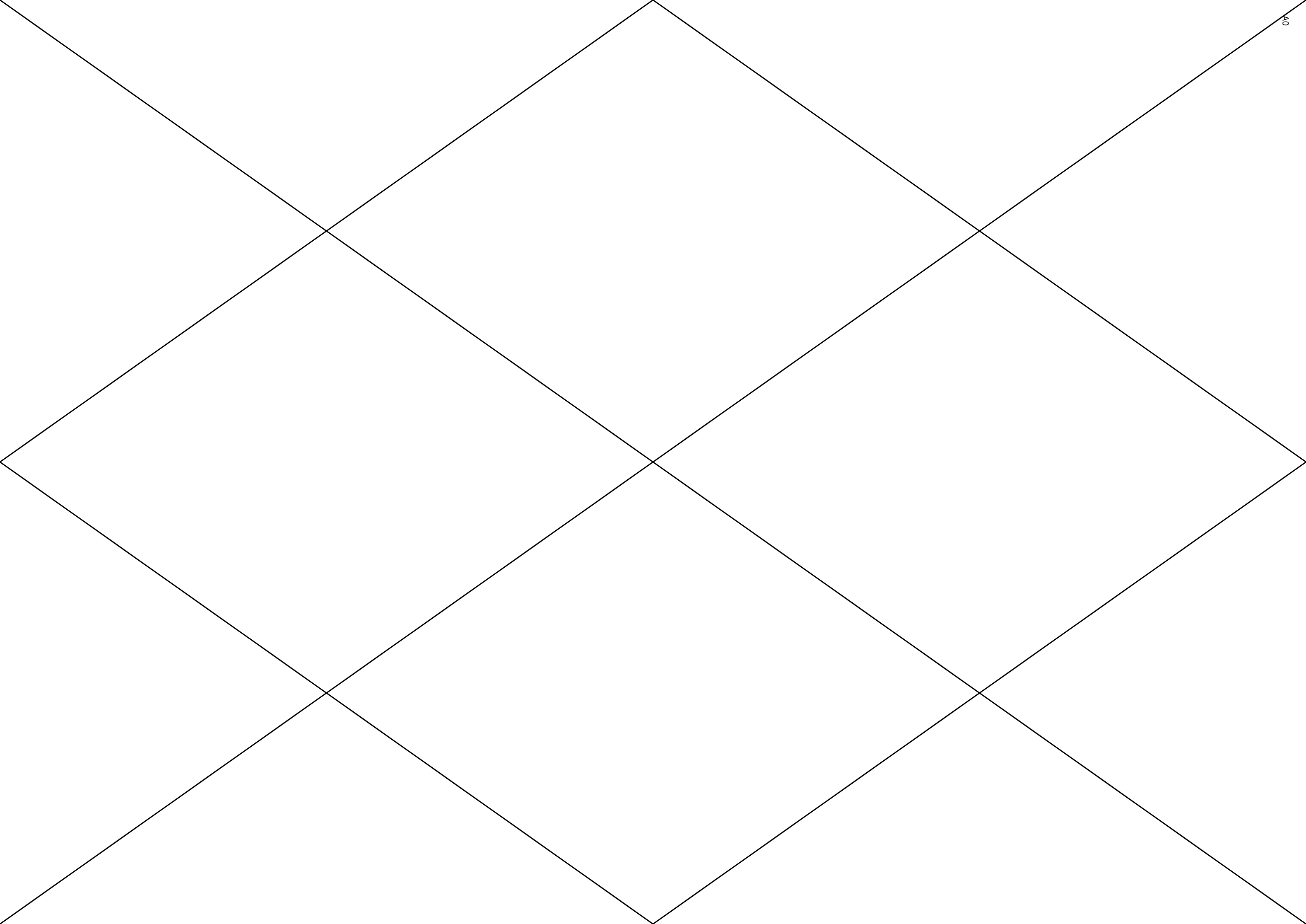
결론적으로, 이 개념적인 작업은 측정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를
만드는 시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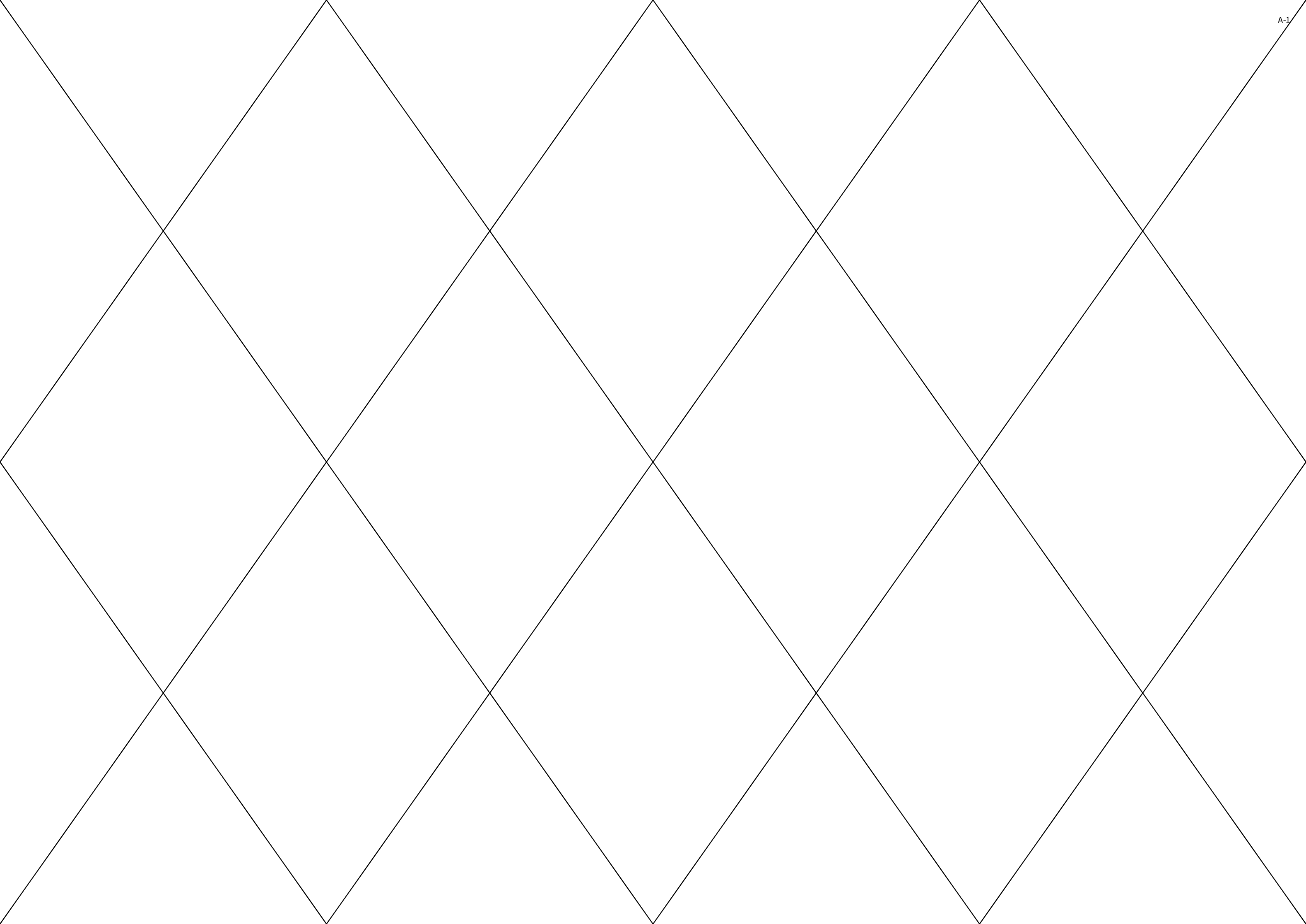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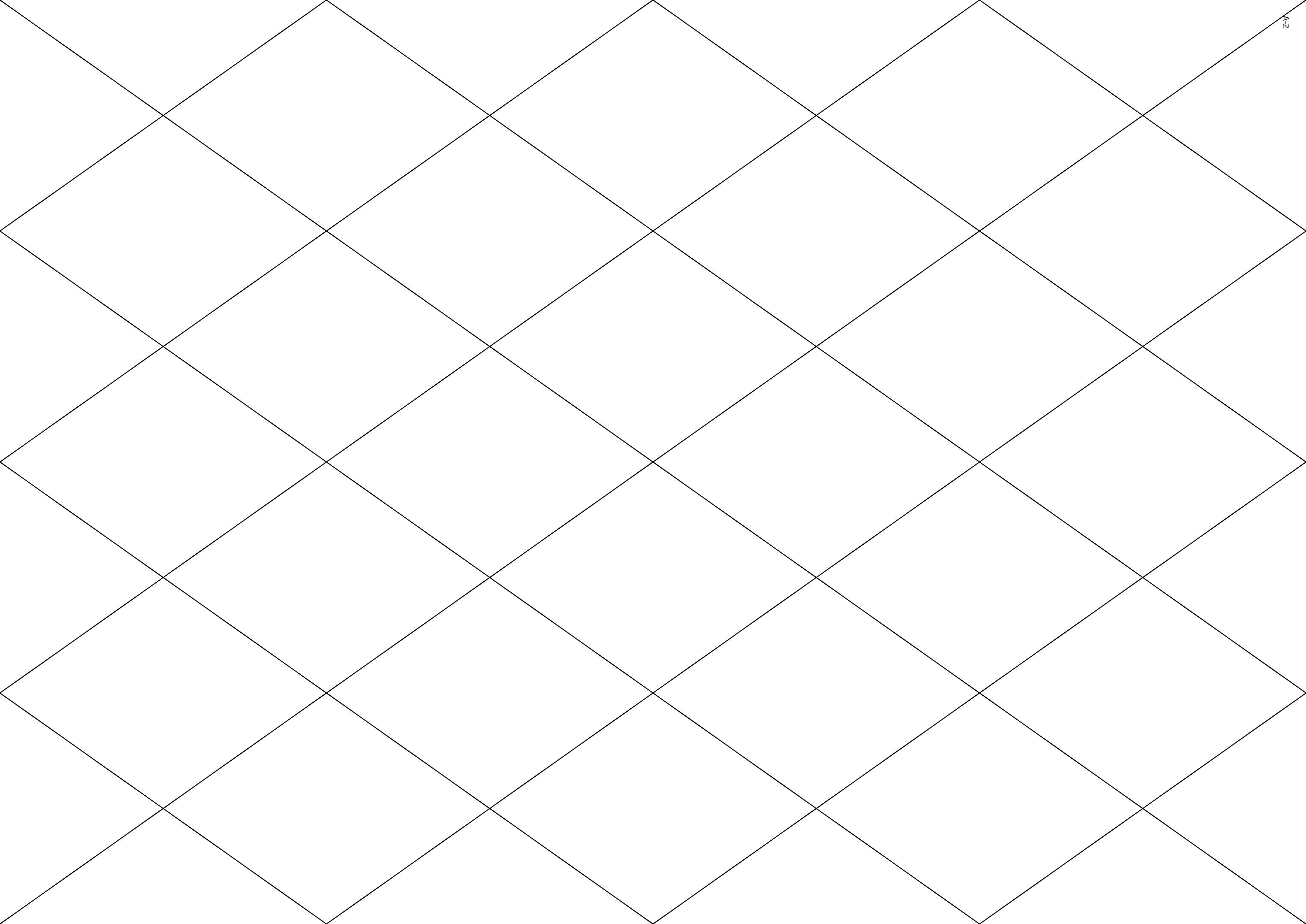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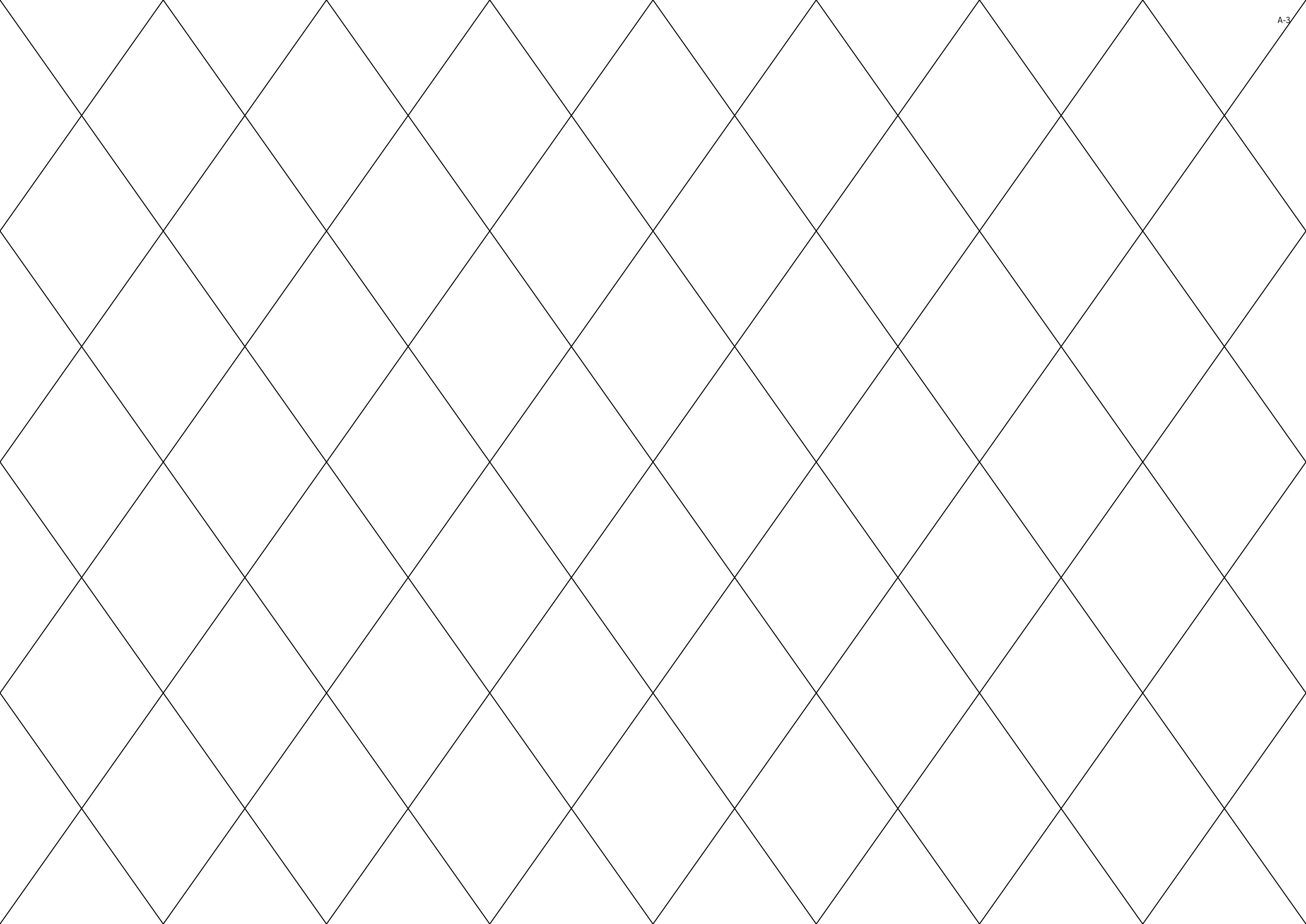
“I hate you, as much as A2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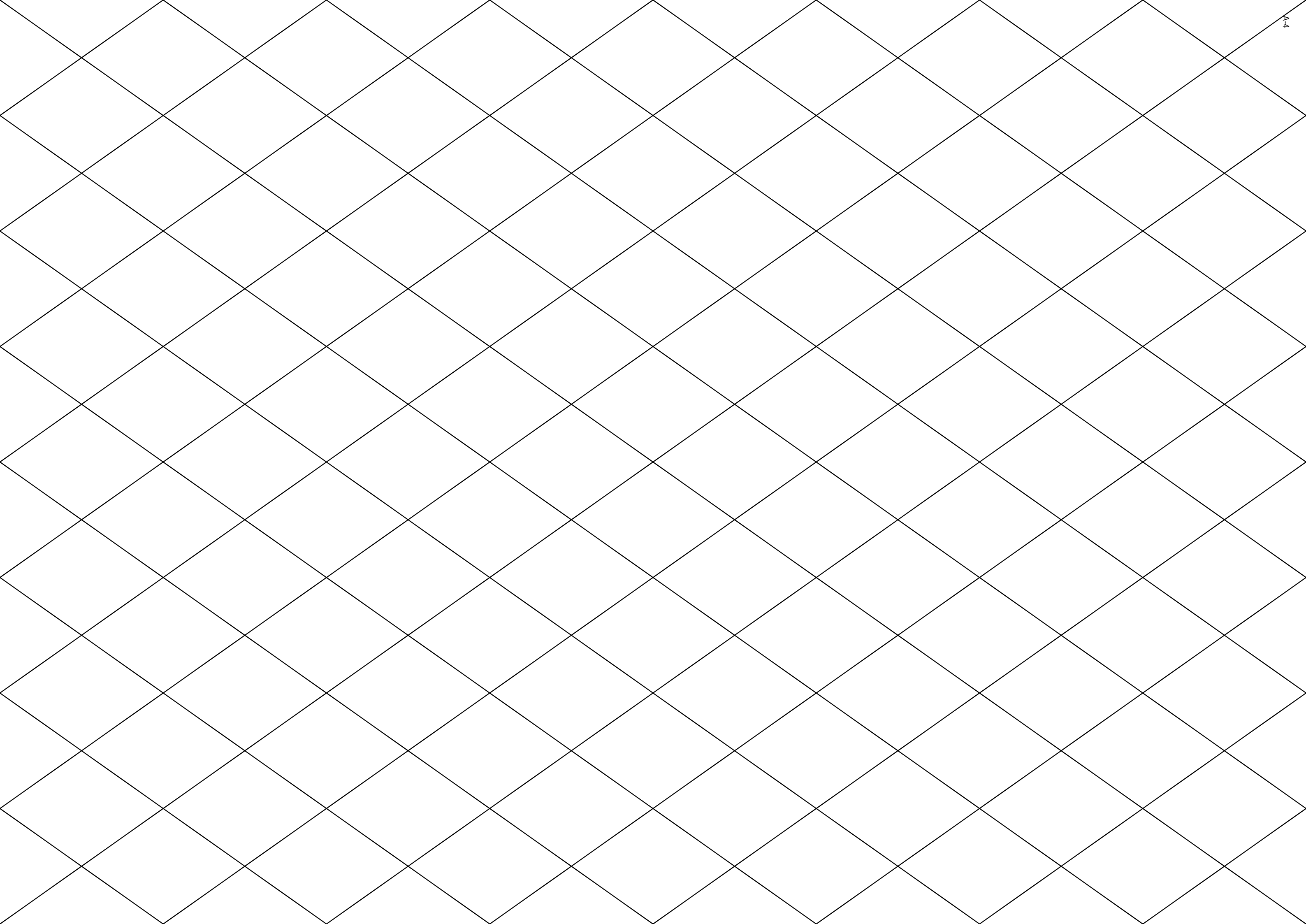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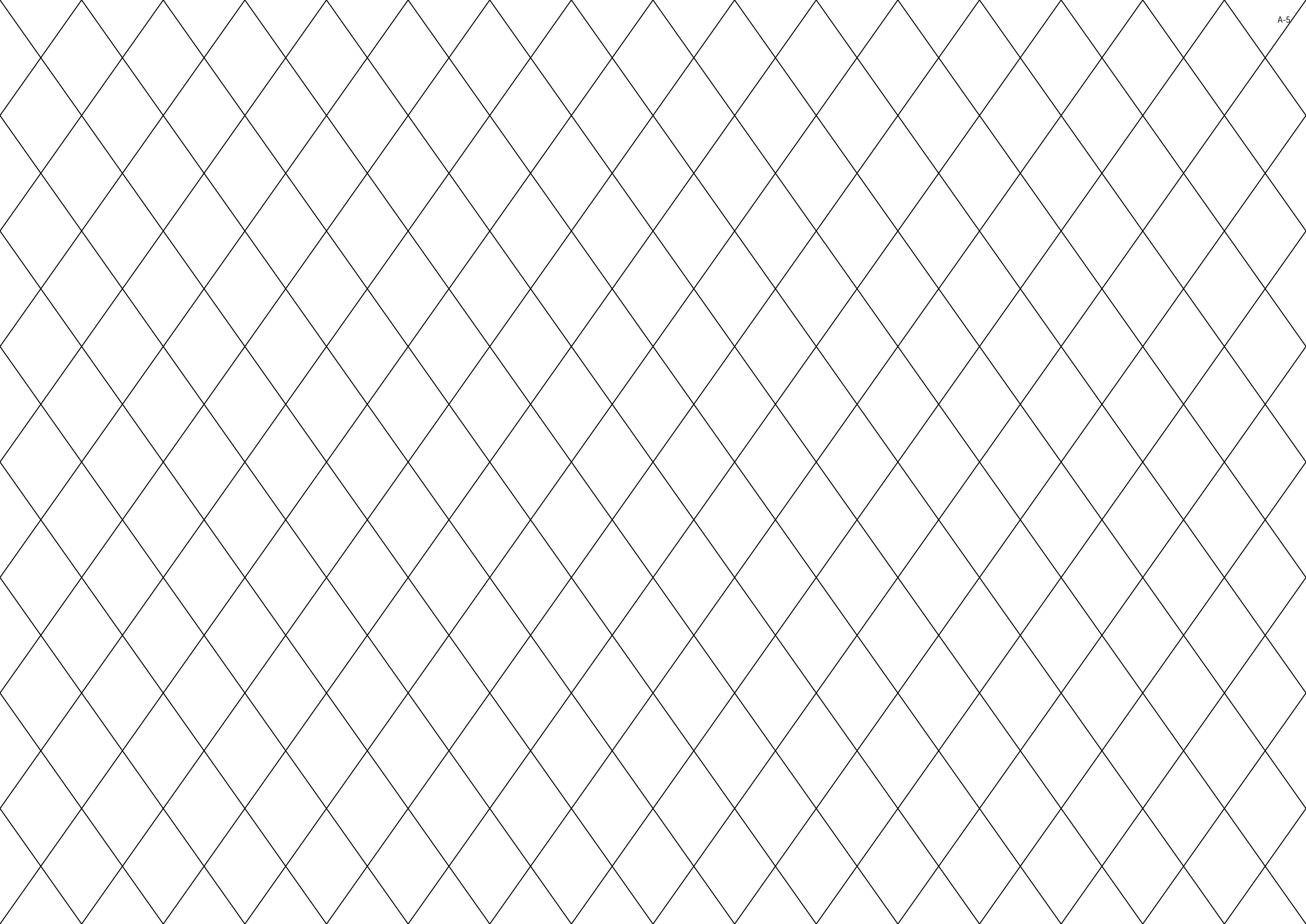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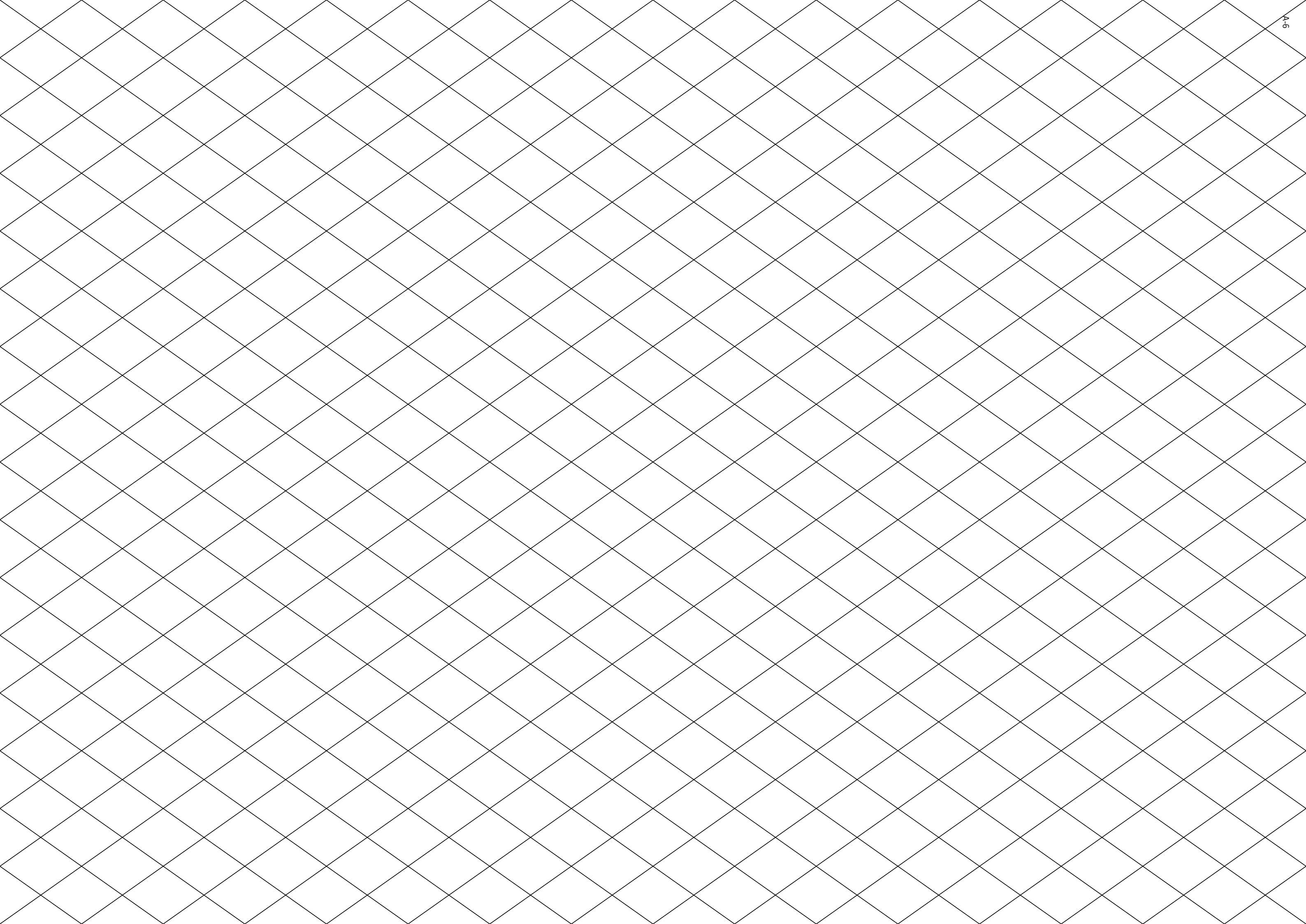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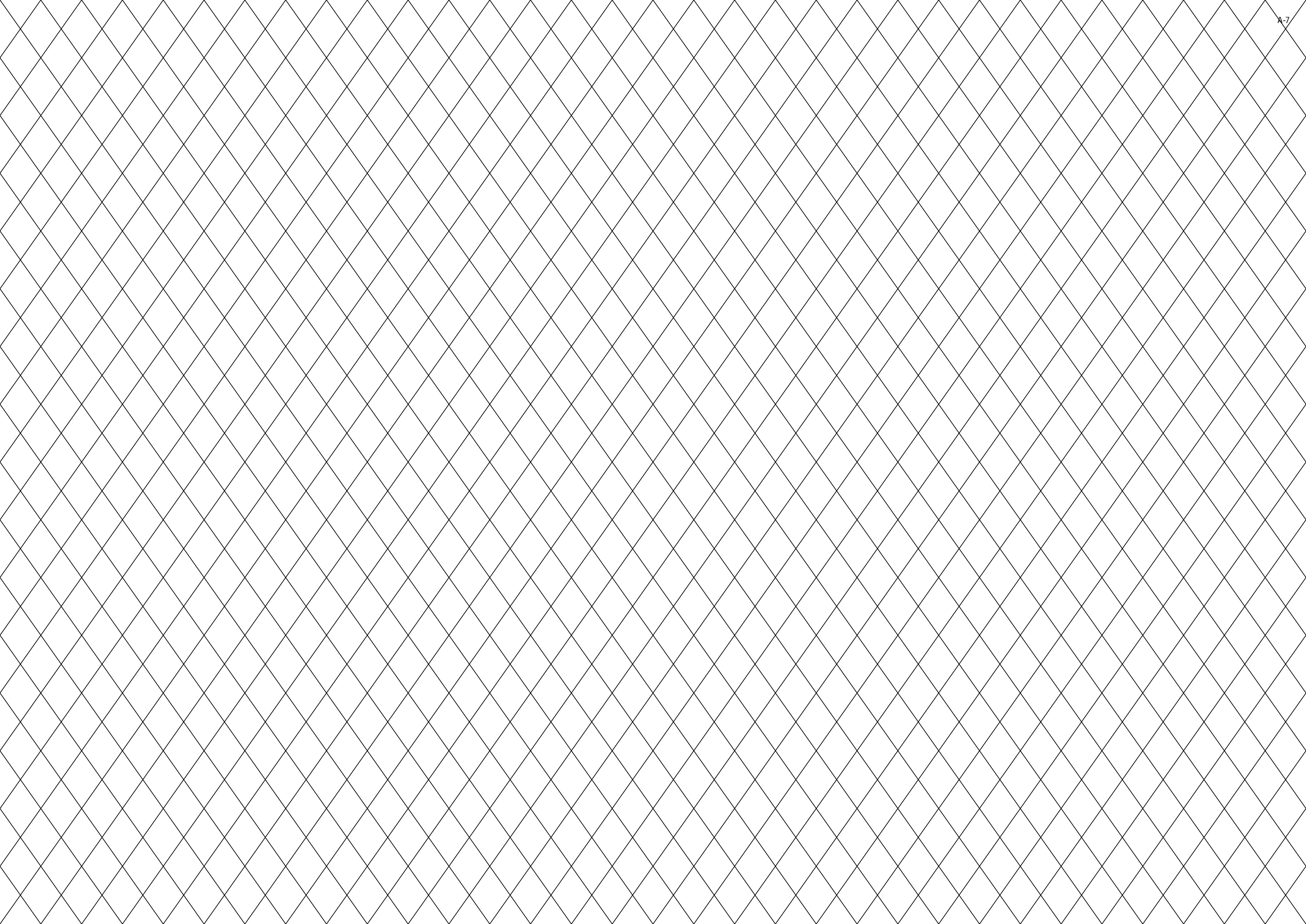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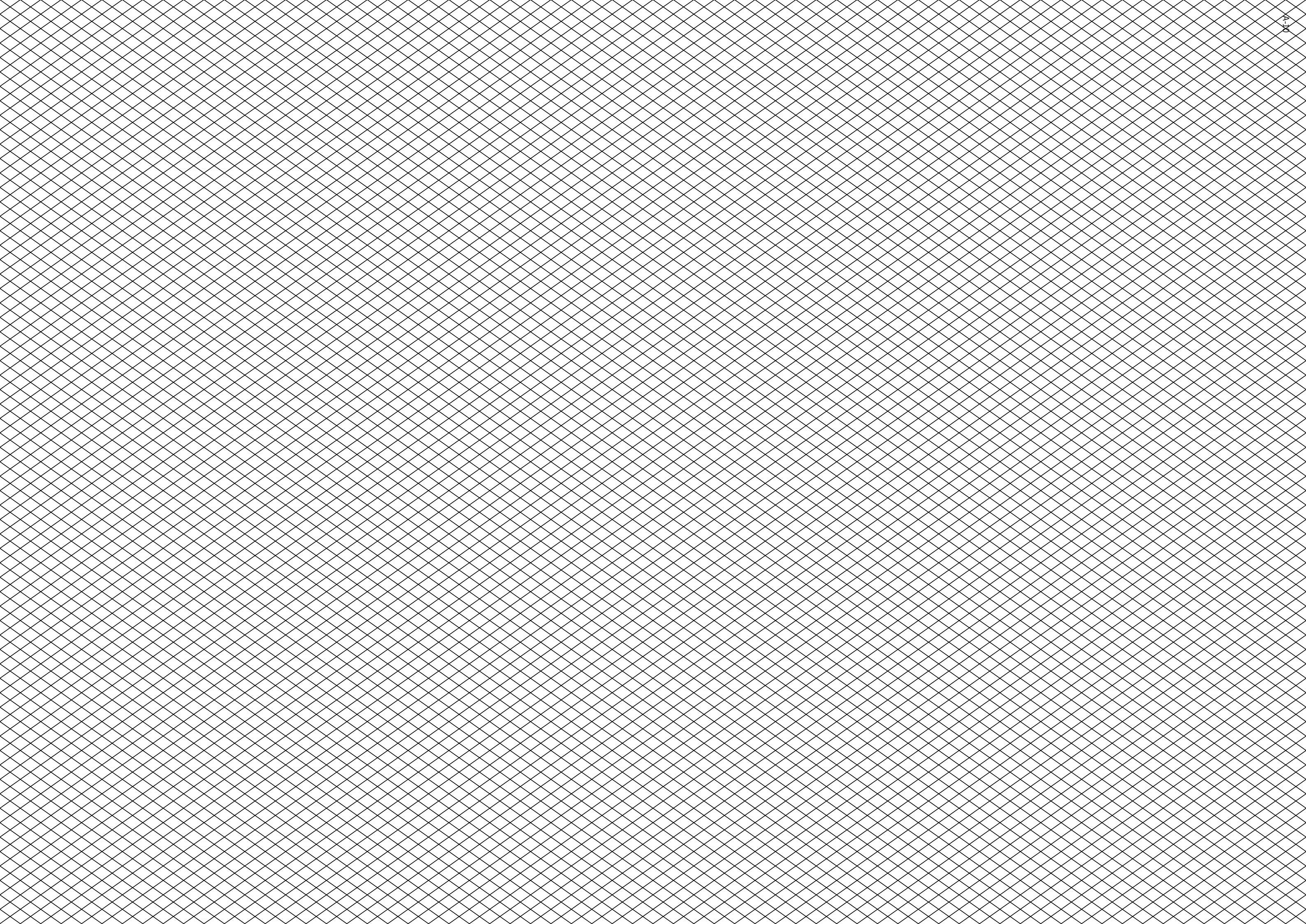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“I hate you, as much as...”

